

品質과 소프트웨어 産業成長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소프트웨어업체가 신규로 설립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력자원이 풍부한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사실 美國, 日本 등 정보산업 선진국에서도 점차 소프트웨어의 중요도와 그 수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기술의 급속한 발전, 컴퓨터 가격의 저렴화, 정보기기의 이용가치증가, 산업의 자동화 및 정보사회의 조기구축 등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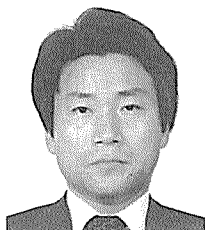
그러나 외국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만을 얻어내려고 하면 우리의 산업구조, 사회여건, 환경 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의 현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Cost)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아직도 크게 미흡한 상태이다.

潛在수요가 미처 개발되기도 전에 일감부족으로 업체끼리 과당경쟁을 일삼고 이것이 품질저하를 유발, 사용자측으로부터 불신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이제 막 싹이 트려고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은 발전에 큰 지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비록 그 역사가 짧지만 그간 많

김현진
현영시스템즈 사장



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또 사라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 기업 중에 규모는 다소 작지만 다년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체가 적지않다. 이렇게 꾸준히 커가고 있는 기업체들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용자에게 만족스런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는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이들 기업은 나름대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국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기업이 성장·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良質의 제품생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품질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상당한 가격을 인정하면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값을 쳐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소프트웨어의 질을 제대로 평가, 구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